

해외여행·항공권·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메조여행사
한국동토리(조계사역)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02)733-3900

“무엇이 우리를 이롭게 하나”



〈컴퓨터그래픽 = 부디피아〉

세계 환경의 날 서울선언 **팔만대장경과 해인골프장**

골프장 건설 반대 1백만명 서명 대법원 상고...“환경우선 결정을”

92년 6월 경기도 용인군에서 양돈업을 하던 퇴직공무원 이모씨(73)는 산성선 건너편에 위치한 골프장 개발업체를 상대로 6천7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돼지우리에서 1km 떨어진 골프장 건설공사장에서 터져나오는 발파음과 진동으로 자신의 돼지가 돼지 2마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사산 유산 불임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골프장측은 발파음이나 진동이 우둔한 돼지를 탈나게 했을리가 없다고 맞섰다. 이렇게 해서 ‘골프장과 돼지’는 환경조정위원회에 법정에 들어오게 됐다.

조정위는 6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당시의 소음-진동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치이다. 돼지는 사람보다 외부반응에 민감하다. 따라서 돼지는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6천8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당시 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돼지와 대화할 수 있었다면 결론을 얻기까지 반년 넘게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골프장과 팔만대장경’이다.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및 관전과 대화할 때가 닳치고야 말았다. 골프장 건설로 팔만대장경과 관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얼마치의 배상액을 결정할까, 아마 배상액을 결정치 못할 것이다. 또 배상으로 마무리될 문제도 아니다.

골프장과 팔만대장경이 문제가 된 것은 90년초 심주군이 농어촌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경북 성주군 백운리 산66번지 일대에 골프장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주)가야개발을 국립공원 개발 사업주로 지정하면서부터였다. 이후 경상북도는 94년 12월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해인사는 문화체육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95년 7월 가야개발에 대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가야개발은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법은 96년 6월 사업계획승인취소재결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법의 결정이 있자 해인사와 환경운동연합 지역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각계에 해인골프장 건설의 취소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보내는 등의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4개월만에 1백만명의 국민이 참여,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반대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주었다. 학계 종교계 정·관계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110인의 ‘가야산 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 건설 전면백지화 선언’을 비롯해 각계의 반대성명도 잇따랐다.

현재 이 사건은 문체부와 해인사에서 고법결정에 이의를 제기,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3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 결정될 지 아직 모른다. 다만 문체부와 해인사에서 제기한 경북도의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치우친 것은 도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서 불법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체로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 병독성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 생태계 파괴, 문화유적지 훼손 등으로 분류된다. 해인골프장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박상진교수(경북대 입산공학과)는 골프장 건설은 해인사주변의 공중습도조건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해인사 주위는 식물의 생태환경에 알맞은 공기유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인사의 생태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골프장 건설 후 개활지를 통과한 바람이 경관이 보존되어 있는 정경각으로 유입되었을 때 공기중의 상태



◇“신이런 물건이건 그대로 두라” 해인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불지 1천여명이 지난해 7월26일 해인사 부근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습도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바로 지금까지 안정되어 있던 경관의 목재함수율에 고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급작스런 경관의 과건조를 불러일으켜 경관이 갈라지고 비틀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8만평 18홀 규모로 계획된 해인골프장의 경우 연간 7.5톤의 농약이 살포될 것으로 추정되며, 골프장 잔디보호-유지용으로 1일 2300톤의 지하수 사용으로 식수 및 농업용수의 고갈도 우려된다.

대장경 및 관전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골프장 예정지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농사를 지어 가업을 잇는 고령을 4만여명의 식수와 먹거리 일대 농경지 190만평의 농업용수가 위협받을 지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법원주심대법도 도명판에서는 “연간 7.5톤에 이르는 농약사용으로 고령군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 고령군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론 농작물 또한 오염되어 임금남게 진상되던 맥국쌀은 더이상 할로를 잃고 말 것”이라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의 강산을 후손대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

각한다”고 말했다. 마침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이다. 올해로 25주년을 맞는다. 이 날을 전후해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들은 환경주간으로 정해 각종 행사를 펼쳐 환경의식의 제고와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정부는 지구환경보전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할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을 각각 정부대표 및 환경단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다. ‘서울선언’ 전문에서는 “자연을 정복과 조종의 대상으로 삼아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탐욕을 충족시키려 하는 한 지구환경의 피해는 필연적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실천강령에는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엄정히 시행하며, 예측이 불확실하면 개발결정을 유보토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해인골프장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 팔만대장경 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다. 생태계의 파괴와 인명의 피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팔만대장경의 훼손은 세계인의 유산을 빼앗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명하다. 문화유산과 삶의 터전을 온전히 보전키 위해 골프장 건설계획을 취소하는 것뿐이다. 가장 적은 비용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정성운 기자

하루 2300톤 지하수
년 7.5톤 농약 사용
환경피해 ‘불보듯’

“생태계 변화 초래
대장경판 과건조
갈라지고 비틀어질
가능성 많다”

최선의 선택
골프장 건설 백지화

환경부는 5일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을 발표한다. 이 선언에는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예측이 불확실하면 개발결정을 유보토록 한다’는 실천강령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선언’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지는 ‘팔만대장경과 골프장’이 그 척도가 될 것이다.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목소리는 1백만 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마음깊은 뜻을 무엇일까.

‘가야산이 갖는 중요성은 국내명산으로 일컬어지는 금강산 지리산 설악산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로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해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인골프장이 신설된다면 병독성 농약이 년 7.5톤이나 살포된다고 합니다. 지하수는 물론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또한 48만평의 잔디보호와 유지를 위해 1일 용수량 2천300톤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뽑아 써야 함으로 산성성이 하나 사이로 있는 해인사쪽의 지하수 감소현상을 불러와 지반의 붕괴위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 정경관과 등의 균열이나 부식부패없이 영구히 보존하지 못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해인골프장 관련 주요일지

| | |
|----------|--|
| 90년 | 성주군, 가야개발을 가야산국립공원 개발사업주로 지정 |
| 94.12.24 |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
| 95. 3.18 | 골프장 건설저지 고령군민 결기대회 |
| 95. 5.27 | 해인사 총림대책위 결성 |
| 95. 6.22 | 불교법종단 대책위 결성 |
| 95. 7. 5 | 문체부,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취소 |
| 95. 8.24 | 가야개발, 서울고법에 사업계획 취소처분 취소소송 |
| 96. 6.19 | 서울고법, 취소처분 취소 결정 |
| 96. 6.28 |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백지화 요구 대구지역 40개 시회단체 공동결의문 발표 |
| 96. 7. 1 | 해인골프장 백지화 요구 각계 대표 110인 해인골프장 백지화 요구 선언발표 및 기자회견 |
| 96. 7.18 | 해인골프장 전면백지화를 위한 백만인 서명 시작 |
| 96. 9.18 | 해인사 문체부, 대법원에 상고 |
| 96.11.14 |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서명 1백만명 돌파 |

◇사진 오른쪽 끝에 해인골프장 사업주 소유의 ‘국민호텔’이 보이고, 그 왼쪽 신하리 48만평이 골프장 건설 예정지이다.

